

고졸 특급 유격수 프로 출발대 서다

KIA 눈길 끄는 신인 '박민'



야구 명문 야탑고 졸업... 지난해 KIA 1순위 지명 받아 스프링캠프·팀 내 흥백전 18경기 출전 공·수 존재감 자세·타구 방향 등 타격 자세 전면 수정... 수비 3루 도전 "훈련도 즐거워... 변화구 대처 능력 키워 1군 데뷔 목표"

‘코로나19’가 야속한 KIA 타이거즈 선수가 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게 즐거운 ‘막내’ 박민의 이야기다.
 내야수 박민은 야탑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들고 고졸 투수다. KIA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른 유망주다.
 박민은 ‘스프링캠프 참가’라는 프로 첫 목표를 이룬 뒤, 다음 목표로인 ‘1군 데뷔’를 위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창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는 28일까지 주어진 휴가가 오히려 아쉬다.
 박민은 플로리다 캠프에서 15경기에 나와 21타석을 소화했다. 2개의 2루타 포함 4안타를 기록했다. 5번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5개의 볼넷도 골라냈다.
 국내로 돌아와 진행된 세 번의 흥백전에서는 9타수 3안타(타율 0.333) 1타점을 올렸다.
 지난 20일 첫 경기에서는 안타 없이 삼진만 당했지만, 21일 멀티히트로 1타점도 기록했다. 교체 멤버로 들어간 23일에는 2루타도 날렸다.
 박민은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려고 한다”며 “캠프 초반에는 직구 들어오면 초구부터 나가면서 결과가 좋았는데 캠프 막바지에는 마음이 급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공을 놓치고 그랬다. 한국 와서 초구부터 나가니 유리한 카운트로 가져가고 좋은 타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차원이 다른 강속구와 변화구에 놀랐던 박민은 경기를 거듭하면서 프로의 공에 많이 익숙해졌다.
 박민은 “미국 캠프에서 프로 타구도 처음 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허둥지둥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많이 배웠다. 나도 빠른 공을 칠 수 있다고 느꼈다”고 웃었다.
 무엇보다 “기본”을 배운 게 가장 의미가 있다. 박민은 “수비할 때 김민우 코치님께

서 기본적인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기본에 집중하다 보니 더 좋아졌고 많이 배웠다”며 “수비도 타격이든 기본이 중요한 것 같다. 기본도 안 하고 잘하려고 하면 엇박자 난다고 해서 기본에 신경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본에 충실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그에게 윌리엄스 감독도 좋은 스승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흥백전 이닝 교체 시간에 박민을 불러 수비 문제를 이야기해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민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선수다 보니까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것 같다. 감독님은 과감한 수비를 강조하신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한 수비를 이야기하신다”며 “유티브로 감독님 선수 시절 영상을 찾아봤다. 타격도, 수비도 진짜 공격적이셨다. 배울 점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매일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채울 게 많은 신인. 고등학교 시절 ‘특급 유격수’로 활약했던 박민은 익숙하지 않은 3루에서 새로 배우고 있다. 3루는 KIA의 취약점이자 박민에게는 기회의 자리다.
 박민은 “유격수 할 때는 빠른 타구가 없으니 발을 많이 움직여서 할 수 있었는데 3루는 타구가 빨라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 같다”며 “그 범위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력적으로 힘든 포지션은 아닌데 타구가 많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3루수로 습관을 바꾸고 있는 박민은 타격도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다.
 박민은 “캠프에서는 세계 치는 것에 집중했고 지금은 서 있는 자세부터, 탑워치, 다리 내리고 중심이동하는 것, 타구 방향 등 다 바꾸고 있다”며 “왼쪽 벽이 치기 전부터 무너져서 좌중간, 좌측으로만 타구가 갔다. 타구결, 면이 좋아져야 한다고 해서 폼을 바꾸고 있다. 많이 배워서 1군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아시아 넘버원’

아시아축구연맹 ‘뽀 최고 해외파’ 톱 4 중 첫 손 꼽아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28·토트넘)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출신 해외파’ 중 첫 손에 꼽혔다.
 AFC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수십년간 여러 아시아의 훌륭한 선수들이 날리 진출해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면서 그중 가장 뛰어난 네 명을 뽑았다.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은 단연 손흥민이었다. AFC는 첫 번째로 손흥민을 내세우며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손흥민은 AFC 가맹국 선수로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 중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에게 주는 ‘AFC 국제선수상’을 2015, 2017, 2019년 받은 바 있다.
 AFC는 “손흥민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자, 아시아가 배출한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일 것”이라며 “16세 때 독일로 가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합류한 이후 많은 성공을 누렸다”고 전했다.
 또 “함부르크 1군 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20세엔 바이어 레버쿠젠에 영입됐다. 이적료는 구단 역사상 최고액인 1000만 유로(약 134억원)로 알려졌다”면서 “이후에도 손흥민은 상승가도를 달렸다”고 활약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2015년 여름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 30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여기서 그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에선 팀이 꾸준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톱4’에 들고,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데에도 앞장섰으며,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에서 3골을 터뜨린 건 많은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AFC는 “화려한 득점포와 지지치 않는 활동량, 상대도 웃게 하는 미소로 손흥민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고 극찬했다.
 손흥민 외에 4인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이란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약했던 메디 마다비기아(43), 다양한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일본의 스타 혼다 게이스케(34), J리그에서 기량을 뽐낸 태국 출신의 수비수 티라톤 분마탄(30)이었다.
 /연합뉴스

류현진 ‘외로운 생일’

미국 내 코로나19 급격 확산... 스프링캠프에 발 묶여 홀로 훈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6일 생일을 맞았다.
 그는 맷 슈메이커, 테너 로어케에 이어 팀 내 세 번째로 만 33세가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류현진의 생일을 축하했다.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올렸다.
 팬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다. 한 팬은 구단의 생일 축하 게시물에 “류현진, 당신은 터널 끝에 있는 우리의 빛”이라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기쁜 날이지만 류현진은 크게 웃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류현진은 생일 다음 날인 27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개막 홈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류현진은 현재 구단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류현진은 캐나다가 미국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 금지



토론토 구단이 올린 류현진 생일 축하 메시지

7이닝 더블헤더·12월 포스트시즌...

MLB, 코로나19 확산에 지연된 리그 운영 아이디어 붓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정규리그 개막을 연기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각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선 미국 정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메이저리그는 일러야 5월 중순에 시즌의 막을 올린다.
 팀당 162경기를 모두 치를지, 경기 수를 144경기나 그 이하로 줄일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MLB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현재 리그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므로 좀 더 창의적인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MLB에선 형성됐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로스 앵킨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단장은 기자들과의 화상 회견에서 “7이닝 더블헤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수의 피로도를 줄이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미국 대학야구나 마이너리그에선 더블헤더를 7이닝으로 치른다.
 에런 분 뉴욕 양키스 감독은 7이닝 더블헤더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도 한 주에 한 팀이 8~9번 경기하려면 MLB가 로스터 운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MLB는 올해 정규리그 개막부터 8월까지 팀당 로스터를 기존보다 1명 늘린 26명으로 운용할 방침이었다. 투수는 로스터의 절반인 13명을 남겨설 수

지 정책을 펼치면서 스프링캠프에 발이 묶였다.
 대다수 선수가 연고지 토론토로 이동한 가운데, 류현진은 아마구치 슌(일본), 라파엘 돌리스(도미니카공화국)와 캠프에 잔류했다. 이 중 아마구치는 25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더니든의 상황은 좋지 않다. 코치진은 물론, 훈련 지원 스태프도 거의 떠났다. 식사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없다.
 분 감독은 더블헤더를 자주 치려면 투수가 최소 14명이 필요하고 따라서 전체 로스터도 26명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단순 계산상 각 팀이 평균 한 주에 9경기를 치른다면 18주면 162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평소대로 162경기를 벌이려면 26주가 걸린다.
 입장료·중계권 수입, 상품 판매 등을 포함한 야구 산업의 측면에서 각 구단은 되도록 경기를 많이 치르길 원한다. 경기 수가 많아야 버는 돈도 많다.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도 162경기를 모두 치른다는 가정하에 “12월 포스트시즌”을 제안했다.
 보라스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기후를 조사했다며 이 지역의 12월 평균 기온은 19도로 대다수 도시의 3월 말과 4월 초 평균기온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엔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를만한 경기장 11개가 있고 월드시리즈도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라스의 구상은 지붕이 있는 돔구장 또는 따뜻한 지역의 중립 구장에서 ‘겨울 야구’를 치르자는 몇몇 다른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보라스의 제안대로 12월에 포스트시즌을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 경기가 12월 27일에 끝난다. 상황에 따라 성탄절 월드시리즈(WS)도 기대해 볼 만하다.
 /연합뉴스